

# 대학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를 중심으로

백승희(白承喜)\*

정혜원(鄭惠苑)\*\*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과 비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대학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의 유형을 추정하고, 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교육 종단 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교 입학생 2,166명(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237명,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1,929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 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잠재계층은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계층 간 예측변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에서 계층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은 선후배와의 교류,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은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과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은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님과의 교류가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는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생활 성과, 잠재계층 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대학별 고사, 고교 내신의 주요 대입전형이 조합을 이루면서 국가 또는 대학 주도의 다양한 대입전형이 시행되어 왔다(장광희, 2011).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려는 대학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고등교육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지하, 이병식, 2010).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월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에서는 수능과목 축소, 3단계에서는 완전 자율화를 통해, 대입전형에서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대학 자체 학생선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하였다. 3단계 대입자율화 발표 이후 많은 대학들은 양적으로 확대된 입학사정관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전형요소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수시는 학생부중심, 정시는 수능중심을 대입전형 간소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입전형의 자료로 수시는 학생부 자료, 정시는 수능성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집시기별로 단일의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는 '쉬운 수능'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후 대학은 2015학년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우선선발의 폐지로 인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대체로 일반선발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하였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명칭을 바꾼 학생부종합전형은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잠재력, 환경, 소질을 반영한 입학사정관 전형 취지를 반영해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택, 조민경, 김효희, 2014).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기조로 한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지난 몇 년간 각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다양한 전형요소를 조합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점수위주의 기계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각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실시된 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의 대학 대학생활 성과를 분석(강기수, 2010; 노경란, 윤수정, 2012; 전경애, 2012)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지난 2008년도에 10개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5년에는 전체 4년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약 15.6%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이렇듯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제도의

목적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김준엽, 박소영, 신혜숙, 민병철, 2013).

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지난 30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Pascarella와 Terenzini(2005)에 따르면, 대학생활의 성과는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고차적 사고능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능력과, 가치와 태도 등 비인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등 다양한 지표들로 측정하였다. 국내의 대학생활 성과를 고찰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고 대학생활 성과의 지표로 학업성취도를 알아보는 연구들(김지하, 이병식, 2010; 이광현, 권용재, 2014; 김준엽 외, 2013)이 있었으며, 다른 지표로 대학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충족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알아보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윤성이, 민희, 김은혜, 김명옥, 2013; 이광현, 권용재, 2014; 전경애, 2012), 그리고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도 즉, 학교생활 적응도(임진택 외, 2014; 한미현, 배상목, 2015)를 측정함으로써 대학생활 성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한 기존전형과 달리 잠재력, 적성, 창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지를 비롯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은지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가능성 등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개별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이 선발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학에서의 적응도, 학교만족도, 학업성취도가 뛰어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전경애, 2012).

또한, 대학생 집단에는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하며 각 집단에 따른 유형과 추세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그에 따른 중재방안도 차별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이은진, 2014). Moffit(1997), Reid와 Patterson(1989)과 같은 유형학 이론가들은 특정 성취발달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유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할때, 이러한 유형화 연구를 통해 대학생활 패턴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분류되는지, 대학생활 성과가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현안나, 2009). 더불어 이를 통해 각 집단별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조아미, 신택수, 2012)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잠재계층분석은 관찰된 범주형 변수들의 응답에 따라 독특하고 개별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모델 기반 접근방식으로(Muthén &

Muthén, 2000), 집단의 개수나 크기가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사용하는 변수의 척도에 관계없이 계층을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기존의 연구가 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변수중심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방법이라면 잠재계층 분석은 변수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둔 관찰대상 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신택수, 2010).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생활 성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본 연구의 잠재계층 분석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측자를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 차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학생 생활 성과에 대한 결과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이 아닌 대학생 생활 성과 계층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계층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 종단 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한국 교육 종단 연구 7차년도 자료는 201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로 설문 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학업성취도, 대학 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세 요인 전체를 아우르는 즉, 대학생 생활 성과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요인인, 인구학적 특성,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와 대학입학 후에 학생들이 겪게 되는 학교생활의 경험인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후배와의 교류가 유형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른 입학생들의 대학생 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의 유형을 추정하고, 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 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의 잠재계층은 몇 개가 존재하며,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소재지, 설립유형,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후배와의 교류 중 잠재계층의 결정요인으로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입학사정관 전형과 대학생활 성과

#### 1)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란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해 가는 과정 또는 결과로,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얻어지는 모든 교육 성과까지를 포함한다. 채선희(2000)는 학교의 학습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질적 변화 및 양적인 증가를 포함한 지적발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GPA를 정의했다. 이는 학생의 GPA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지적발달을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각 개인의 대학 내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GPA 평가는 학습자의 교육목표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교육목표 성취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분석하며,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얻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GPA평가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중철, 2000).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으로 연구들은 주로 대입전형 방식, 대입 전형 요소별 성적, 개인배경, 가정배경, 대학 배경, 대학생활 등의 요인들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대입전형 방식과 전형요소와 함께 대학 학업성취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2008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와 기존 전형과의 학업성취도 및 대학생활 측면 비교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분석들이 본격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요소,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요소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알아본 우정민과 정다운(2012)의 연구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기존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 상승 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양인준(2014)의 연구에서는 입학전형 및 단과대학에 따른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 진로태도 성숙도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는 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수능전형 입학생들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사이의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비교 살펴본 윤성이 외(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전형 유형에 따른 학점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김준엽 외(2013)는 한국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데이터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학점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는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에 비해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 수도권, 국립대, 사립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2)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사, 또래 집단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충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이며 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개인적, 주관적 현상으로 정의 된다(이두현, 2009). 최근 들어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강기수(2012)는 서울 B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해서 질적 연구한 결과 입학사정관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전공이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경란과 윤수정(2012)연구에서는 서울 C사립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FGI)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애교심이 높았으며, 자기주도적 학업수행 노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이 외(2013)의 서울 D사립대의 연구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주로 서울 소재의 사립대에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 3)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교생활 적응도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대학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학업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다(김보나, 2010). 다시 말해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과 학생 사이에 원활한 상호교환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는 과정과 관련되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전경애, 2012).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를 비교 분석한 김보나(2011)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정시나 수시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들보다 첫 학기에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애(2012)의 서울 A 사립대학 연구의 결과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도가 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현중(2012)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 이것은 입학전형 유형과 학교생활에 관련한 상호작용에 있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 2.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들

대학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성별, 대학 소재지, 대학 설립 유형,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와 대학생활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석준과 김병주(2010)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그 외 전형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첫 해의 영어와 수학 실력 테스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성적을 보였으나 1년 뒤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정민과 정다운(2012)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이 처음 도입된 2009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보다 낮으나, 2010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GPA가 높았으며 2011학년도에는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향상 추이가 뚜렷했으며,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을 입학한 학생들은 신입생 전체의 학교생활 만족도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교생활 적응도 잘하여 중도 탈락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만수, 박상규, 2011; 전경애, 2012).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학업성취와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는 있는 연구(정봉영, 2004; 한재훈, 권석진, 박종선, 2015)가 있었으며, 사회과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는 하나 임상일과 이소란(199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덕로와 손경애(2013)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게 인식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높게 인식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대학소재지를 들 수 있는데, 김준엽 외(2013)는 수도권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 입학생보다 학점이 높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반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한국교육패널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차영란(2010)은 학교생활 만족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김인숙과 정주영(2010)은 수도권지역의 대학시설 만족도가 대학생들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수도권지역보다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영민과 임정연(2011)은 학교생활적응, 그 중에서도 사회적 적응이 지방출신의 학생이 수도권지역 학생들보다 높다고 하였다.

조원기(2015)에 따르면 대학배경(대학설립유형)은 1학년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1학년 이후부터는 대학 설립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성경(2007)은 국공립대학생과 사립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행정서비스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어 서비스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원격대학생의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유평준(2008)은 수업참여도는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임연옥과 이옥화(2008)는 학습활동은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학습활동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고용패널 2006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 신정철, 정지선과 신태수(2008)는 교육과정 만족도는 수업태도를 향상시키고 수업태도는 긍정적 학업성취도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지막 변인으로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 즉, 인적교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의 공학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선영과 김누리(2013)는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이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손경애와 이덕로(2013)는 교직원 부문에서는 교수와 직원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학생 부문에서는 선후배와의 모임이 유일하게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살펴본 김준곤, 성한기, 이춘희, 박경자(1991)도 두 요인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혔으며, 면학에 전념하기 위해서 두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서울 소재 3개 대학 4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성화, 천영희와 함성수(2014)는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교우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조원기, 2015).

대학생활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학이 아닌 단일 대학의 사례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설립유형을 비롯한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등이 대학생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과 그 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를 탐색해 보기 위하여 대학 설립



유형, 대학 소재지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한국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집되어 매년 추수 조사되었는데, 조사 대상이 7차년도인 2011년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 중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설문도 동시에 실시되어 전형방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성과의 유형을 잠재계층 분석을 통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유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특성,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후배와의 교류가 유형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 교육 종단 연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의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해인 2011년에 조사된 7차년도 자료로, 2011년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대상 6,908명 중 다수가 2011년 대학에 진학했는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2,166명(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237명,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1,929명)이다.

#### 2. 분석 변인

##### 1) 대학생활 성과 변인

대학생활 성과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된 변인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이다. 학업성취도는 2011년 대학교 1학년들의 1학기 평균 성적(평점)이다. 학교별 만점이 4.0점, 4.3점, 4.5점 등으로 달라 이를 보정해 비교할 필요가 있어, 잠재계층 분류 시 100점 만점으로 변환한 점수를 사용하였고 잠재계층 유형을 그래프로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한 점수를 사용하였다(김준엽 외, 2013).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419.127$   $p<.001$ , RMSEA=.087,

CFI=.934, TLI=.901의 적합도를 보였다. '매우 불만족'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Cronbach's  $\alpha$  는 .838이다. 학교생활 적응도는 9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340.613$   $p<.001$ , RMSEA=.080, CFI=.984, TLI=.975의 적합도를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는 하는 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값은 .812였다.

<표 1> 대학생활 성과 변인의 구성

변인	설 명
학업성취도	100점 환산점수, Z점수
학교생활만족도	1.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교수 및 강사진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 수업방식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 전반적인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교수와의 교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 교수관계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9. 선후배관계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대학생활적응도	1.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2. 학업 측면에서 교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였다 3.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졌다 4.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 5. 대학에서 학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친구와의 교류, 진로탐색, 취미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쉬웠다 6.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7.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 8.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았다 9. 마음이 잘 맞아서 공부, 흥미, 취미활동 등을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다

## 2)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들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잠재계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은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성별, 대학 소재지, 대학 설립 유형,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후배와의 교류이며,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 성별, 대학 소재지와 대학 설립 유형은 더미변수이며 입학사정관 전형입학=1, 비입학사정관 전형=0, 남학생=1, 여학생=0, 수도권=1, 비수도권=0, 국공립=1, 사립=0으로 코딩 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활동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에 1점, '항상 한다'에 5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발적

으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Cronbach's  $\alpha$  는 .787이다. 수업참여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소극적'에 1점에서 '매우 적극적'에 5점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업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786이었다. 다음으로 교수님과 교류는 7문항으로 '전혀 안함'에 1점, '거의 매일'에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는 .876이었다. 선후배와의 교류는 9문항이었으나 전체문항과 낮은 상관을 보인 2문항(기타,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총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안함'에 1점, '거의 매일'에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는 .875이었다.

<표 2>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들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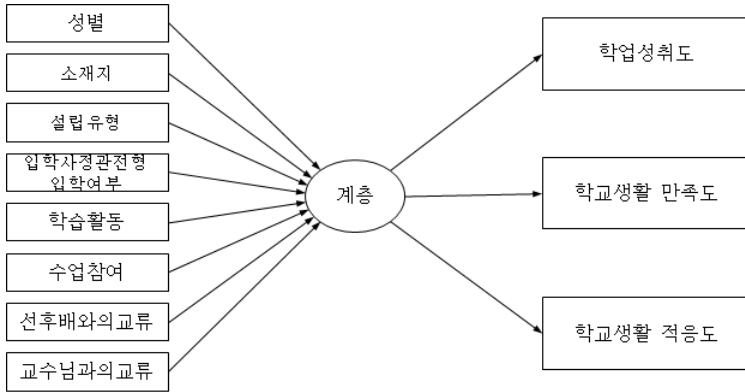
변인	설 명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대학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대학 설립유형	공립=1, 사립=0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입학사정관 전형입학=1, 비입학사정관 전형=0
학습활동	1.수업시간에 질문 한다 2.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 한다 3.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좋은지에 대해 평가 한다 4.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을 도전 한다 5.자발적으로 글쓰기를 연습 한다 6.학술논문이나 자료를 찾아 본다 7.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 한다 8.실수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받아 들인다 9.내가 한 일이나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 한다
수업참여	1.토론 참여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까? 2.질문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까? 3.팀 프로젝트 참여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까? 4.발표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까? 5.수업 준비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까?
선후배와의 교류	1.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2.수업 관련 학습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3.수업 이외 학습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4.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나눔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5.학과(학교)행사 또는 모임 참석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6.야외활동 또는 운동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7.오락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교수님과의 교류	1.가벼운 인사를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2.간단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3.수업내용에 대한 대화 또는 질의응답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4.수업내용 이외의 주제에 대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5.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학업, 진로 등)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6.성적에 대한 문의를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7.행사준비 등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를 고려하여 학업성취도와 잠재변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를 기준으로 입학생의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잠재계층의 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후 잠재계층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 분석은 동일한 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결정하는데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겹으로 구분이 가능한 변수를 가지고 각 계층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나 변수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게 될 때에는 동일 집단 내에 한 개 이상의 하위집단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잠재계층을 검증한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적합도 지수, 붓트스트랩 최대우도 비율검증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LM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그리고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와 계층의 실제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AIC와 BIC는 추정모수의 수나 표집의 크기를 고려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 BLRT는 최근에 나온 통계검증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적합도 지수는 아니나, 최근 몇 년간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는 지수로 입증받고 있으며, 모든 조건하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LMR과 유의한 확률(P-value)값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비교를 채택하지만 표본에서 다량의 붓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는 로그우도 차이 분포를 추정한다(신태수, 2010). LMRT는 계층의 수가 다르게 추정된 두 모형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지수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LMRT는 하나 적은 수(k-1)의 계층을 추정한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ntropy는 개별사례가 주어진 계층에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적합지수이며,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나타낸다. 또한 잠재계층의 실제적인 유용성을 평가하였는데 이 기준은 k계층이 미미한 분포를 나타내거나 다른 계층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k-1계층이 선택되는 것을 의미한다(Muthén & Muthén, 2000).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계층 구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의 용이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계층의 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cCare, Champman & Christ, 2006)

잠재계층이 확인된 후에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계층이 구분되었는지, 즉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성별, 대학 소재지, 대학 설립 유형,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배와의 교류가 각 잠재계층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Mplus 7.0을 사용하

였고, 그 외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연구 결과

### 1. 대학생활 성과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대학생활 성과 관련 변인들,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성별, 대학 소재지, 대학 설립 유형,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후배와의 교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왜도<2, 첨도<4의 의 분포를 보여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으며(Hong, Malik, & Lee, 2003), 학업성취도와 선후배와의 교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025 < |r| < .604$ 의 결과를 보였고, 공차(Tolerance)가  $.612 \sim .988$ , 분산팽창계수(VIF)가  $1.012 \sim 1.684$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인구학적 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n(%)	변인		n(%)
성별	남학생	1068(49.3%)	대학	수도권	685(31.6%)
	여학생	1098(50.7%)	소재지	비수도권	148(68.4%)
입학사정관 전형입학여부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237(10.9%)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	517(23.9%)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1929(89.1%)		사립	1649(76.1%)

<표 4> 대학생활 성과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변인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님과의 교류	선후배와의 교류
학업성취도	1						
학교생활 만족도	.086***						
학교생활 적응	.206***	.604***					
학습활동	.236***	.302***	.442***				
수업참여	.251***	.316***	.420***	.587***			
교수님과의 교류	.059**	.343***	.383***	.354***	.310***		
선후배와의 교류	-.025	.297***	.291***	.234***	.252***	.323***	1
평균	72.759	3.303	3.144	3.075	3.286	2.693	3.516
표준편차	13.722	.569	.546	.531	.648	.955	1.161
왜도	-.729	-.159	.062	.039	-.121	.496	.012
첨도	.965	.663	.403	.577	.670	-.111	-.627

\*\* $p < .01$ , \*\*\* $p < .001$

## 2.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성과 차이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라 대학생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라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비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더 높은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성과의 차이

변인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n=237$ $M(SD)$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n=1929$ $M(SD)$	$t$
학업성취도	3.157(.675)	3.274(.606)	-2.778**
학교생활 만족도	3.438(.582)	3.286(.565)	3.911***
학교생활 적응도	3.212(.547)	3.136(.546)	2.038*

\* $p < .05$ , \*\* $p < .01$ , \*\*\* $p < .001$

### 3. 잠재계층의 수 결정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 수를 1개씩 증가시키면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2계층에서 6계층까지 계층 수를 달리한 모형에 대해 모형적합 지수와 각 계층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AIC와 BIC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AIC와 BIC는 작을수록 적합한 모델임을 의미하는데(Muthén & Muthén, 2000), 2계층에서 3계층 사이에 정보량 기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4계층 모형에서부터는 감소폭이 완만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계층 모형과 5계층 모형을 비교했을 때 정보량 기준이 5계층이 더 작았으나 5계층에 비해 4계층이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절하고, 각 잠재계층의 변화 그래프가 잘 구분되었다.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4개 집단이 모두 잘 구분되어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한 유형은 4계층((Log Likelihood=-45601.722, AIC= 91369.443, BIC=91840.936, LMRT=-45970.27,  $p < .001$ , Entropy=.800)잠재 집단이었으며, 선택된 잠재계층 모형의 분류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 사후확률을 분석한 결과, 4개 계층의 평균사후확률 범위가 .833~.944로 사후확률이 1.0에 가깝게 나타나 높은 분류정확도를 나타냈다.

<표 6>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log-L	-46826.690	-45970.273	<b>-45601.722</b>	-45227.944	-45002.998
df	49	66	<b>83</b>	100	117
AIC	93751.381	92072.54	<b>91369.443</b>	90655.887	90239.996
BIC	94029.732	92447.46	<b>91840.936</b>	91223.951	90904.631
aBIC	93874.052	92237.777	<b>91577.234</b>	90906.238	90532.907
Entropy	0.839	0.854	<b>0.800</b>	0.832	0.827
LMRT	-49619.519	-46826.690	<b>-45970.270</b>	-45601.722	-45227.944
p-value	.0000	.0000	<b>.0079</b>	.0000	.0223
BLRT	-49619.519	-46826.690	<b>-45970.273</b>	-45601.722	-45227.944
p-value	.0000	.0000	<b>.0000</b>	.0000	.0000
1계층(%)	1169(54)	297(14)	<b>708(33)</b>	225(10)	149(7)
2계층(%)	997(46)	1165(54)	<b>263(12)</b>	496(23)	554(26)
3계층(%)		704(33)	<b>518(24)</b>	657(30)	647(30)
4계층(%)			<b>677(31)</b>	727(34)	221(10)
5계층(%)				61(3)	534(25)
6계층(%)					61(3)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의 잠재계층의 수준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잠재계층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의 수준을 표 7과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각 계층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계층 1은 가장 많은 사례수( $n=708$ , 32.7%)를 가지며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학교생활 적응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계층 1을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계층 2는 가장 적은 사례수( $n=263$ , 12.1%)를 가지며 세 변인 모두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이 계층을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계층 3은 3변인 모두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계층 2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4는 3변인 모두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으며 또한, 평균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계층 4를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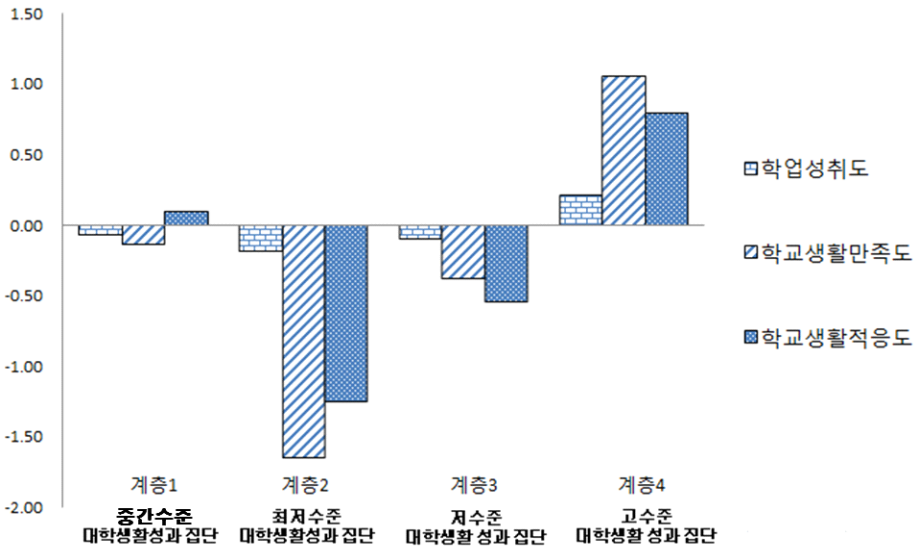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입학생 전체,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으로 나누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집단이 등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 등분산성이 위배되었을 시 적용할 수 있는 다중 검증 방법인 Tamhane T2를 통해 계층 간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이영준, 2000). 그 결과 입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 모두 각 계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성취도는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보다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는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가장 낮았고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계층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적응도는 전체 입학생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또한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의 계층 간 차이도 전체 입학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7> 잠재계층별 변인 수준

입 사 관 입 학 여 부	대학생활 성과 변인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4	F	사후 검증 (Tamhane T2)
		n=708 (32.7%)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n=263 (12.1%)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집단 M(SD)	n=518 (23.9%)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n=677 (31.3%)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전 체	학업성취도	71.864 (13.703)	70.208 (14.673)	71.432 (14.052)	75.704 (12.601)	16.384***	1,2,3<4
	학교생활 만족도	3.228 (.276)	2.368 (.359)	3.089 (.264)	3.907 (.325)	1861.995***	2<3< 1<4
	학교생활 적응도	3.198 (.386)	2.462 (.412)	2.848 (.356)	3.579 (.442)	617.333***	2<3< 1<4
	학업성취도	67.553 (16.786)	67.338 (10.978)	72.058 (13.081)	73.180 (15.841)	2.232	-
입 학	학교생활 만족도	3.290 (.242)	2.386 (.304)	3.104 (.252)	3.998 (.382)	199.969***	2<3< 1<4
	학교생활 적응도	3.201 (.427)	2.447 (.299)	2.877 (.325)	3.609 (.457)	64.822***	2<3< 1<4
	학업성취도	72.314 (13.275)	70.427 (14.917)	71.348 (14.188)	76.090 (11.997)	16.407***	1,2,3<4
	학교생활 만족도	3.221 (.279)	2.367 (.364)	3.087 (.265)	3.893 (.314)	1655.847***	2<3< 1<4
비 입 학	학교생활 만족도	3.198 (.382)	2.463 (.420)	2.845 (.360)	3.575 (.440)	549.450***	2<3< 1<4

\*\*\*p<.001



[그림 2] 대학생활 성과의 잠재계층 유형(Z점수 변환)

#### 4. 잠재계층별 특징

##### 1) 대학생활 성과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된 대학생활 성과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차 분석 결과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에서 4계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대학생활 성과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변인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4	$\chi^2$
		n=708 (32.7%)	n=263 (12.1%)	n=518 (23.9%)	n=677 (31.3%)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	입학사정관 입학	67 (28.3%)	19 (8.0%)	61 (25.7%)	90 (38.0%)	9.532*
	비입학사정관 입학	641 (33.2%)	244 (12.6%)	457 (23.7%)	587 (30.4%)	
성별	남학생	341 (31.9%)	127 (11.9%)	251 (23.5%)	349 (32.7%)	1.993
	여학생	367 (33.4%)	136 (12.4%)	267 (24.3%)	328 (29.9%)	
소재지	수도권	229 (33.4%)	91 (13.3%)	139 (20.3%)	226 (33.0%)	7.713
	비수도권	479 (32.3%)	172 (11.6%)	379 (25.6%)	451 (30.5%)	
설립유형	국공립	175 (33.8%)	56 (10.8%)	132 (25.5%)	154 (29.8%)	2.452
	사립	533 (32.3%)	207 (12.6%)	386 (23.4%)	523 (31.7%)	

\* $p < .05$

##### 2) 대학생활 성과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관련 요인의 차이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된 대학생활 성과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입학 후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집단이 등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 등분산성이 위배 되었을 시 적용할 수 있는 다중 검증 방법인 Tamhane T2를 통해 계층 간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이영준, 2000). 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 모두 4개의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학습활동, 수업참여, 교수와의 교류는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그리고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후배와의 교류는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보다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생활 성과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관련 요인의 차이

변인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4	합계 M(SD)	F	사후검증 (Tamhane T2)
	n=708 (32.7%)	n=263 (12.1%)	n=518 (23.9%)	n=677 (31.3%)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M(SD)			
학습활동	3.060(.473)	2.802(.576)	2.948(.487)	3.296(.517)	3.075(.531)	80.316***	2<3<1<4
수업참여	3.273(.575)	2.916(.732)	3.117(.599)	3.573(.601)	3.286(.648)	95.627***	2<3<1<4
선후배와의 교류	3.717(1.074)	2.948(1.190)	3.092(1.093)	3.850(1.110)	3.516(1.161)	77.157***	2,3<1,4
교수님과의 교류	2.700(.919)	2.144(.817)	2.457(.852)	3.080(.957)	2.693(.955)	85.291***	2<3<1<4

\*\*\*p<.001

### 5. 잠재계층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

대학생활 성과의 잠재계층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기준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4계층의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각 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된 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홍세희, 노연경, 2009). 그 결과는 표 10과 같았으며, 제시된 추정치는 기준집단에 비해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예측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그리고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선후배와의 교류를 살펴보면,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보다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가 선후배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교수님과의 교류가 원활할수록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각 계층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은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비해 수업참여, 선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를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비해 선후배 교류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와 비교 시에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가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비해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는 모든 변인에서 다른 계층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은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비해 수업참여, 교수와의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는 그 외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과 비교 시 대학 소재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점이다. 반면,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성별, 설립유형은 잠재계층 분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준거집단 vs 비교집단)

변인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vs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vs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vs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i>B</i>	<i>s.e</i>	<i>Exp(B)</i>	<i>B</i>	<i>s.e</i>	<i>Exp(B)</i>	<i>B</i>	<i>s.e</i>	<i>Exp(B)</i>
	입학사정관 전형(예)	-.219	.292	0.803	.326	.198	.722	.228	.180
성별(남)	.005	.159	1.005	.004	.122	.996	.164	.114	1.178
소재지 (수도권)	.047	.179	1.048	-.239	.144	1.270	.044	.131	1.045
설립유형 (국공립)	-.276	.202	0.759	-.072	.149	1.075	.025	.141	1.025
학습활동	-.305	.190	.737	-.151	.153	.860	.462**	.141	1.588
수업참여	-.408**	.152	.665	-.182	.124	.833	.561***	.118	1.753
선배와의 교류	-.459***	.076	.632	-.466***	.060	.627	-.058	.055	.944
교수님과의 교류	-.502***	.108	.606	-.146	.077	.864	.301***	.068	1.351
변인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vs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vs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vs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i>B</i>	<i>s.e</i>	<i>Exp(B)</i>	<i>B</i>	<i>s.e</i>	<i>Exp(B)</i>	<i>B</i>	<i>s.e</i>	<i>Exp(B)</i>
	입학사정관 전형(예)	.482	.282	1.619	.352	.311	1.422	-.195	.207
성별(남)	.050	.159	1.051	.166	.180	1.181	.160	.135	1.174
소재지 (수도권)	-.304	.176	0.738	.010	.199	1.010	.312*	.155	1.366
설립유형 (국공립)	.262	.196	1.300	.374	.224	1.454	.125	.164	1.133
학습활동	.152	.183	1.165	.566**	.209	1.761	.514**	.164	1.672
수업참여	.343*	.144	1.409	.954***	.167	2.597	.843***	.136	2.322
선배와의 교류	-.008	.073	.992	.366***	.082	1.442	.401***	.063	1.493
교수님과의 교류	.381***	.107	1.464	.812***	.116	2.251	.493***	.082	1.637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2010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1학년도에는 선발인원이 10%대로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울권 주요 대학은 20%를 넘기도 했는데, 서울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35.4%, 연세대는 20%, 고려대는 55.6%로 2천명을 넘게 선발했으며(서울특별시교육 연구정보원, 2011),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약 15.6%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이렇듯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제도의 목적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김준엽 외, 2013), 이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가 대학 생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과를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고 이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세 요인을 고려하여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성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계층 분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의 양상에 따라 이질적인 계층을 구분한 결과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으로 명명한 4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32.7%로 가장 많은 사례수가 속해 있었으며,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12.1%,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23.9%,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31.3%의 분포를 보였다.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을 제외한 3집단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생활 적응은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과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된 대학생활 성과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에서 4계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는 대학생 집단의 이질적인 유형화 양상을 파악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유형 분류 결과,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를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비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몰려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관 입학 여부에 따라 대학 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들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은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 모두가 높게 나타난 집단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크게 보였는데 비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보다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이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우관계 또한 좋았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두 계층은 학업성취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김준엽 외, 2013; 김지하, 이병식, 2010; 류영철, 2013; 박승민, 변복수, 김지인, 황현영, 2013; 우정민, 정다운, 2012; 윤성이 외, 2013; 이광현, 권용재, 2014; 임진택 외, 2014; 전경애, 2012; 조원기, 2015; 최현석, 박철용, 2013; 한미현, 배상목, 2015; 한송이, 김준엽, 2013).

셋째, 대학생활 성과의 잠재계층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계층의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각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예측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집단'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리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보다는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선후배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보다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교수님과의 교류가 원활할수록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중간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보다는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최저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 과 '고수준 대학생활 성과 집단'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는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님과의 교류를 고려하여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방법을 편성하거나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도전적인 과제를 만들어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업방법들을 개발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차별화된 좋은 평가를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어야 적극적

인 학습활동의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교수들의 수용적 태도와 적극적 관심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차원에서는 학습공동체 (learning community) 지원 시스템을 갖춰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피드백 해주며 서로 배우고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선후배간의 관계형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별, 설립유형,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는 계층을 구분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는 대학생활 성과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요인의 차이 검증결과에서는 4계층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성과 차이 검증 시에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잠재계층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여부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각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나,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학생활 성과를 고수준, 저수준, 최저수준, 중간수준으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변인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4계층을 2계층 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 실시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가 대학생활 성과를 분류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활 성과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시 입학사정관 전형, 성별, 설립유형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학 입학 후의 학교생활 변인에 해당하는 학습활동, 수업참여, 선후배와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가 계층 분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발 이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교수진과의 관계를 활성화 하는 등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후 지도는 학생 선발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며 성공적인 대학생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 성과를 유형화 하였고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에 중점을 두고 계층을 분석하였으며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학생활 성과(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변수중심의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잠재계층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대학생활 성과를 잠재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즉, 변수중심이 아닌 관찰대상중심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신태수, 2010).



둘째, 대학성과 분석의 특성상 개별적인 대학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져 대학 소재지나 설립유형 등을 고려할 수 없었으나, 전국 규모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학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 변인들인 만큼 추후에는 직접적으로 측정된 변인들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변인들이 어떠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강조하고 있으나(최정윤, 신혜숙, 2010),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변인들을 추후 연구에 활용한다면 대학생활 성과 변인과 예측요인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한 4년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여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석 대상을 확대하거나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선택편의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수(2012).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대학적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사상연구**, 26(1), 1-35.
- 강만수, 박상규(2011). 대학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 학생만족, 명성 및 학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9(1), 153-174.
- 김보나(2010). **입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21-2.
- 김보나(2011). 선발방식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인숙, 정주영(2010). 대학생생활만족도에 관한 집단 간 비교연구: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8(3), 241-260.
- 김준곤, 성한기, 이춘희, 박경자(1991). 대학생활 만족도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 **한국심리학회**, 4(1), 154-167.
- 김준엽, 박소영, 신혜숙, 민병철(2013). 대학에서의 학습 및 활동을 중심으로 본 입학사정관제 성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29-50.
- 김중철(2000). **초등학교학업성취도 평가의 실태 및 문제점**. 서울: 교육광장 12.
- 김지하, 이병식(2010).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41(2), 209-230.
- 노경란, 윤수정(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교육연구논총**, 33(1), 91-118.
- 류영철 (2013).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FGI 를 통한 질적 연구. **입학전형연구**, 2, 135-164.
- 박승민, 변복수, 김지인, 황현영(2013).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과 일반전형 신입생의 입학 후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 **교육연구논총**, 34(1), 181-208.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1).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특징. 보도자료.
- 손경애, 이덕로(2013). 대학생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경영과 정보연구**, 32(4), 1-25.
- 신정철, 정지선, 신태수(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2.
- 신태수(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신현중(2012). 대학생의 성별 및 대학입학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

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신혜숙, 최정운(2013). 학자금 지원이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취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3), 129-154.
- 양성경(2007).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교육서비스 종사자에 관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양인준(2014).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종단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 우정민, 정다운(2012). 입학 전형요소와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제도 실효성 고찰. **입학전형연구**, 2012(1), 153-179.
- 유평준(2003). 원격대학원 온라인 수업의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 관련 변인.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4), 229-267.
- 윤성이, 민희, 김은혜, 김명옥(2013).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성과연구. **입학전형연구**, 2013(2), 165-191.
- 이두현(2009). 대학 입학유형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영민, 임정연(2011).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HRD 연구**, 7(4), 89-118.
- 이영준(2000). **분산분석의 이해**. 서울: 석정.
- 이은진(2014). 청소년의 일탈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이용한 종단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임상일, 이소란(1999). 사회과학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8, 1-33.
- 임연옥, 이옥화(2008). 사이버 학습자의 학습참여도,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열린교육연구**, 16(2), 177-200.
-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2014).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입학전형연구**, 2014(3), 91-110.
- 장광희(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III)-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1-16.
- 장선영, 김누리(2013). 공학전공 학생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에서 문제해결능력, 학습전략,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5(3), 581-602.
- 장성화, 천영희, 함성수(2014).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539-548.
- 전경애(2012).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508-517.
- 정봉영(2004).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 분석-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3), 127-150.

- 조아미, 신택수(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 청소년연구**, 23(2), 161-184.
- 조원기(2015). 대학입학전형과 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대학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차영란(2010). 대학생학 만족도가 졸업 후 모교 기부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529-554.
- 채선희(2000). **학업성취도 평가의 사회적 동향**. 서울: 교육광장12.
- 최석준, 김병주(2010).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자와 수능중심 전형 입학자간의 학업성취도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1), 4220-4227.
- 최현석, 박철용(2013).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K 대학교 사례. **한국 데이터정보과학회지**, 24(6), 1149-1157.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별 시행 현황. 보도자료
- 한미현, 배상목(2015). 대학입학유형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1), 46-53.
- 한송이, 김준엽(2013). 미술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 **교육방법연구**, 25(3), 165-191.
- 현안나(2009). 초등학생들의 잠재적 일탈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197-234.
- 홍세희, 노언경(2009). 초기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시간 변화에 있어서의 잠재계층 도출과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411-431.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Reid, J. B., & Patterson, G. R. (1989).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ur patter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 107-119.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게재승인 2016년 3월 22일

\* 백승희: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및 교육과정 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shbaek@cnu.ac.kr

\* 정혜원: 뉴욕시립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연구 분야는 다층모형 연구, 인과모형 연구, 종단자료를 이용한 학교효과 연구 등이다.

\* E-mail: chw7@cnu.ac.kr

## Abstract

## Latent Class Analysis and Related Factors of University Life Outcomes: Focusing on Admission Officer System

Baek, Seung-Hiey\*

Chung, Hyew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mber of latent classes according to University life outcomes(academic achievement, college experience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base on admission officer(AO)system and those does not, and to test the effects of individual variables on determining the latent classes. In order to do this, data from 7th round data of KELS(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s employed. For analysis, we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our latent classes, which could be defined based on the following patterns: the middle-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e lowest -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e low-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high-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Multinomial logit analysis showed AO system, learning activity, participation intention, relationship with the peers and the teacher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In addition, the fact that participants with high relationship with the peers seem to belong to the lowest -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e low-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high-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an middle-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participants with low participation intention,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seem to belong to the middle-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e lowest-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high-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an the low-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participants with low or high learning activity participation intention, relationship with the peers and the teacher seem to belong to the middle-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the low-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than the lowest-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and high-level University life outcomes group were found. But AO system was not a factor in determining the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limitation,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admission officer system, university life outcomes, latent class analysi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First author, Ph.D Candidate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